

‘피겨퀸’ 김연아 상대 누구?

6차 대회 ‘NHK 트로피’ 오늘 개막

日 아사다·캐나다 로세트 등 각축

‘피겨퀸’ 김연아(18·군포 수리고)와 함께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에서 우승 메달을 다툰 경쟁자들은 과연 누가 될까.

이번 시즌 마지막 그랑프리 시리즈인 ‘NHK트로피’가 28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3일간 열전을 펼치는 가운데 팬들의 관심은 김연아와 조애니 로세트(캐나다)가 이미 확정된 가운데 4명이 이번 대회에서 결정된다.

김연아는 1차와 3차 대회에서 우승했고 로세트는 2차, 4차 대회를 석권했다.

팬들의 관심은 그랑프리 4차 대회에서 기대 이하의 연기를 보여줬던 김연아의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의 활약 여부다. 아사다는 4차 대회에서 총점 167.59점으로 시니어 무대 데뷔 이후 최악의 점수로 2위를 차지했다.

현재 1~5차 대회를 치르면서 안도 미키와 수구리 후미에(이상 일본), 카롤리나 코스트너(이탈리아) 등 3명이 나란히 그랑프리 점수 24점으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사다는 이번 대회에서 최소 3위 이상의 성적으로 겨우야만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의 마지막 선인 그랑프리 점수 24점을 확보하게 된다.

4차 대회를 마친 뒤 러시아에서 집중 훈련에 나선 아사다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관전포인트다. 그랑프리 점수에서 동률이면 우선 각 대회별 순위를 먼저 따지고, 이후 참가한 대회의 총점, 프리스케이팅 성적, 쇼트프로그램 성적순으로 우열을 가린다. 현재 24점을 얻은 선수 가운데 코스트너가 5차 대회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어 나머지 선수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고, 나란히 두 대회에서 2위와 3위를 차지했던 안도와 수구리 가운데 안도가 총점에서 앞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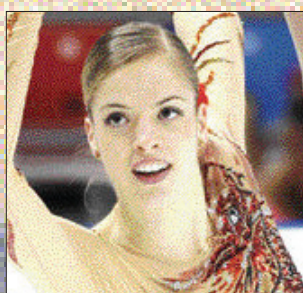
이번 대회 또 한 명의 복병은 1차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나카노 유카리(13점). 나카노 역시 3위 이상 차지하면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 도전해 볼 수 있다. 한편 곡절 끝에 그랑프리 5차 대회에 참가, 9위를 차지했던 김나영(18·연수여고)이 정식 초청선수 자격으로 출전해 성적 상위자들이 모인 2그룹에서 연기를 펼친다. /연합뉴스



일본 아사다



캐나다 로세트



이탈리아 코스트너

독일배구 진출 문성민

남부선발 올스타 영예

독일배구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문성민(24·프리드리히스하펜)이 독일 땅을 밟은지 두달만에 올스타에 뽑혔다.

27일 독일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문성민은 최근 마감된 올스타전 팬투표 결과 마르코 라이프케(게네랄리 하헴)와 함께 남부 선발팀 라이트로 선정됐다.

올스타전은 내년 1월3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릴 예정으로,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은 모두 팬 투표로 선정된다.

문성민은 지난 10월 독일에 진출해 아직 2개월도 뛰지 않았지만 팀의 팀내 득점 랭킹 1위에 오르는 등 뛰어난 활약으로 팀의 주공격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리드리히스하펜은 문성민 외에도 세터 투카스 캄파스와 레프트 개오르크 그로처, 센터 주앙 호세, 리베로 마르쿠스 슈투어어발트 등 남부 선발팀 11명 가운데 5명을 올스타전 선발 명단에 올렸다.

김연아 내달 크리스마스 자선 아이스쇼

입장 수익 전액 성금 기탁

‘피겨퀸’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은반 위의 천사’로 변신한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27일 “내달 그랑프리 파이널(10~14일·고양)을 치르려 잠시 귀국하는 김연아가 국내에 머무는 동안 크리스마스 자선 아이스쇼에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B스포츠는 ‘KB국민은행과 함께 하는 김연아의 엔젤스 온 아이스’라는 이름으로 자선 아이스쇼를 기획, 크리스마스에 맞춰 목동 실내링크에서 김연아와 신예지(서울여대), 윤예지(파천중), 이동원(파천초), 김민석(불암고),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싱글 3위에 오른 ‘꽃미남’ 조니 위어(미국)를 특별 초청해 멋진 무대를 꾸미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번 아이스쇼는 KB국민은행이 스폰서를 맡고, 입장수익 전액은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기탁한다.

지난해 1월 피겨 유망주들에게 장학금 1천200만원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교육업체인 아이비클럽 CF를 찍으면서 받은 출연료 가운데 1억원을 내고 아이비클럽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2억원 상당의 학습비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지난해에는 12월 기름유출 피해를 본 충남 태안군의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 100원을 기증하기도 했다.

김연아는 특히 지난 5월 ‘대신 인베스트먼트포럼 2008’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받은 출연료 2천만원에 대신증권과 포럼 참석자들로부터 3천만원을 보조받아 총 5천만원을 피겨 꿈나무 장학금으로 맡기는 등 ‘선생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애 ‘후지산 정상’도 보인다

1언더...선두 송보배와 2타차

JLPGA 리코컵 챔피언십 1R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사진)가 사상 첫 한·미·일 3개국 메이저 대회 우승에 시동을 걸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최종전 ADT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상금 100만달러를 안고 곧바로 일본으로 건너간 신지애는 27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시즌 마지막 대회이자 메이저대회인 리코컵 투어챔피언십 첫날 1언더파 71타를 쳐 공동 2위에 올랐다.

신지애는 이날 미야자키현 미야자키골프장(파72·6천442야드)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시차와 파로 누적이란 약세에도 버디 4개를 뽑아냈다. 그러나 파3홀 두 곳에서 나온 보기가 아쉬웠다.

신지애와 함께 첫날 한국 선수들이 일제히 선두권에 포진했다.

3월 JLPGA투어 개막전인 다이키 오키드 레이디스를 제패했고 상금랭킹 13위에 올라 있는 송보배(22·슈페리어)는 단독선

수로 나섰다.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뽑아낸 송보배는 2위그룹에 2타 앞서 단독선두에 올랐고 공동 2위 4명 가운데 미즈카 유코를 뺀 3명도 한국 선수가 차지했다.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 첫 한국인 상금왕이 유력한 이지희(29·진로)도 공동 2위에 올라 피날레 우승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이지희는 이 대회에서 3위 이내에만 들어도 상금왕을 차지한다.

올해 2승을 따낸 상금순위 6위를 달리고 있는 전미정(26·전미정)도 2위 그룹에 합류,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는 1라운드를 치렀다.

상금 4위 후쿠시마 아키히코, 5위 후도 유리, 10위 하라 에리나, 15위 모로미자토 시노부 등 일본의 상위 랭커들도 공동 6위(이브와 72타)에 자리해 치열한 우승 경쟁을 예고했다.

이 대회 우승으로 상금왕 경쟁에서 이지희를 제치려는 상금 2위 요코미네 사쿠라와 상금 3위 고가 미호도 공동 12위(1오버파 73타)가 꽤 우승 경쟁에 뛰어들 발판을 마련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LPGA 소렌스탐 잃고 신지애 얻었다”

뉴욕타임스 집중 조명

“LPGA가 결출한 스타인 소렌스탐을 잃었지만 20살의 신지애를 얻음에도 모른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애가 소렌스탐의 은퇴 시기에 맞춰 ADT챔피언십에서 우승함으로써 완벽한 타이밍에 미국 골프팬들에게 존재를 각인시켰다면서 신지애를 집중 조명했다. 신문은 신지애가 한국에서는 ‘마지막 라운드의 여왕’으로 불리지만 미국에서는 불을 직선으로 친다고 해서 ‘초크라인(Chalk Line·분필선)’으로 알려졌다면 14살 때 스크래치골퍼가 된 후 ‘차세대 박세리’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하지만 신지애가 미소를 짓는 버릇 때문에 과묵한 박세리보다는 낸시 로페스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지애의 미소 뒤에는 슬픈 가정사가 숨어있다. 신문은 2003년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남동생과 여동생이 크게 다치는 아픔을 겪었다고 전하면서 신지애도 당시 골프연습이 아니었다면 그 차에 함께 타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애는 “내 모든 골프 경력은 어머니에게 바치는 것”이라면서 지난 8월 브리티시 오픈의 최종일 라운드 직전에는 긴장을 풀기 위해 찬송가를 부르고 어머니에게 기도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어 신지애가 LPGA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동생들과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면 동생들과 소꿉친구 영화, 노래방 등을 가면서 그들이 부상에서 회복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등 집안의 큰 언니(Big Sister)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신지애가 소렌스탐의 은퇴와 함께 잃은 스타파워를 되찾을 수 있을까? 초기 징후는 전망이 좋다”고 진단했다.

NYT는 앞서 지난 24일에도 신지애의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박세리 이후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다. /연합뉴스



아시아 VS 유럽연합 샷대결

아시아 출신 여자프로골프 선수들과 유럽,아메리카, 호주 연합팀이 맞서는 대륙대항골프대회 렉서스컵을 앞두고 양팀 선수들이 27일 오후 싱가포르 아일랜드 컨트리클럽에서 포토라인을 갖고 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렉서스컵은 한국, 대만, 일본 선수들로 꾸러진 아시아팀과 유럽, 미국, 호주 선수들로 구성된 세계연합팀 12명씩이 출전해 벌이는 대회다. /연합뉴스

최경주 30일 LG 스킨스게임 참가

미켈슨 등 스타급 총 출동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스타 플레이어인 단골로 출전해온 LG스킨스게임 우승컵에 도전장을 냈다.

최경주는 30일(한국시간)부터 이를 미

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웰스의 인디언웰스골프장 샬레브러티코스에서 필 미켈슨, 로코 미디어이트(이상 미국), 스티븐 에임스(캐나다) 등과 대결한다.

LG 스킨스게임은 1986년 창설돼 스타 플레이어들이 주로 출전해온 이벤트 경기이다.

아놀드 파머, 잭 니클러스, 톰 왓슨, 개리

플레이어, 페인 스투어트, 프레드 컵스, 커티스 스트레인지, 프레드 컵스, 그렉 노먼, 타이거 우즈, 비제이 싱, 존 말리, 세르히오 가르시아 등 당대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선수 명단을 장식했다.

미국 투자금융회사 메릴린치가 맡던 타이틀 스폰서를 2006년부터 LG전자가 넘겨받아 대회명칭이 LG 스킨스게임이 됐다. 경기는 홀마다 상금을 걸어놓고 가장 낮은 타수를 기록한 선수가 차지하는 방식, 가장 많은 상금을 따낸 선수에게 우승컵이 돌아간다. /연합뉴스